교복자율화와 창의성이 성격특성 및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이선경*(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정준교(서남대학교 경영학과)

서론(연구의 의의)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변화되어 가면서 사회 각분야에서 창의적인 대처능력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창의성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 가능하다고 믿어져서, 많은 기업에서도 연수과정을 통해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교복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시보다 질서와 복종심을 기르려는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주와 창조, 자율적 주권자 육성을 목표로 한 1983년의 교복자율화 조치는 틀에 갖혀 있던 분방한 성장기의 중고등학생을 해방시켜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고 미적 감각을 계발함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교복자율화 조치 이후의 자율복 착용으로 학생들의 책임성과 자율성 개성과 심미성 등이 향상되었을까 ?

교복자율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릴 뿐 이에 대한 사회심리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자들은 학교조직에서의 자유복 착용과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어떤 사회심리적 효과를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을까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자유복착용은 성격특성(창의성, 자율성, 개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유복착용은 의복행동(유행성, 의복심미성, 의복중요성, 의복자신감, 의복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창의성은 성격특성(자율성, 개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창의성은 의복행동(유행성, 의복심미성, 의복중요성, 의복자신감, 의복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서울에 소재하고 교복과 자율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를 남/녀, 강남/강북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교복과 자율복의 경험을 오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640 명의 대상표본 중, 통계처리된 표본은 남학생 317 여학생 312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1980 년 2 월생이었다. 통계처리는 상관관계와 t-test,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1. 자유복착용은 성격특성(창의성, 자율성, 개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자유복착용은 의복행동(유행성, 의복심미성, 의복중요성, 의복자신감, 의복동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창의성은 성격특성(자율성, 개성, 책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창의성은 의복행동(유행성, 의복심미성, 의복중요성, 의복자신감, 의복동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